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765.3011~3



일본의 새소식

2019 SUMMER

Vol.

565



표지

안개 속의 청의 호수(霧の中の靑い池) 홋카이도
제5회 한일포토콘테스트 INTERPARK상
Photo : CHO YOUNGKI

통권 565호 계간지
(2019년 봄호부터 계간지 발행)

발행일 2019년 9월 6일

발행처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디자인 상상디자인

CONTENTS

대사관 관련

- 03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Seoul
축제 15년 새로운 내일로

일한 관계

- 04 日本語で語るニッポン_ 소설가 오가와 이토 대담
음식과 생활과 이야기, 잘 살아가는 것이란
- 10 자매 도시 소개
· 이시카와현과 전라북도의 교류
· 홋카이도의 중심, 아사히카와시와 수원시의 교류

일본 사정

- 16 일본이 알고 싶다
· 도치기현의 숨은 매력
· 다채로운 색으로 물드는 아오모리현의 가을
- 22 일본의 계절을 걷다
여름이 더욱 아름다운 홋카이도
- 26 조금 특별한 공간 미치노에키
규슈의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에서 만난 미치노에키

일본 문화

- 30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의 건축 건축가
철학을 시각으로 결코 현상 유지에 머물지 않는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
- 34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찾아서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의 촬영지, 후쿠오카 다자이후

공보문화원 광장

- 38 일본문화원 리포터 _ 규슈 관광열차
· A열차로 가자
· 이부스키노 다마테바코

문화 행사

- 42 · 2019 여름일본문화 소개전
· 제6회 한일포토콘테스트 개최
· 제17회 한일 가라오케 대회
· 9월 영화상영회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 44 오가하스

한일 축제 日韓交流おまつり

한마당 2019 in Seoul

축제 15년 새로운 내일로 おまつり 15年 新たな明日へ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Seoul

축제 15년 새로운 내일로

한국과 일본 양국 최대 규모의 한일문화교류 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 2019 in Seoul'이 '축제 15년 새로운 내일로'를 테마로 9월 1일 코엑스에서 많은 관객과 언론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는 15년간 한일축제한마당이 다져온 양국의 문화교류와 인적교류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면서 내일로 이어가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1부 공식행사에서는 올해 실행위원장에 취임한 손경식 한국 측 실행위원장과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일본 측 실행위원장의 인사말과 개회선언이 있었다. 이어진 내빈 축사는 일본 측 스즈키 노리카즈(鈴木憲和) 외무대신정무관,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한국 측에서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스즈키 노리카즈 외무대신정무관은 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 지자체 간 교류, 문화·스포츠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아가 한다"고 말했고,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양국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협력해

온 역사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민간 차원의 뿌리 깊은 교류와 상호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최상희 씨는 "2015년부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양국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행사를 통해 배웠고, 올해 운영위원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한일소년소녀합창단과 한일고등학생에 의한 재즈 합동 공연, 그리고 한울림예술단과 기쿠노카이 등의 한일 합동 무대에 매우 감동했으며, 마음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윤현준 씨는 "매년 열리던 행사가 취소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무사히 개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다. 나 자신도 이러한 문화 교류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홍보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다나카 마사시(田中将志)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장은 "올해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으며, 이로써 한일축제한마당은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모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음식과 생활과 이야기 잘 살아가는 것이란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 그 때 먹었던 맛있는 음식으로 떠올린 적이 있는가. 지난 7월, 주한일본대사관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최로 진행된 일본 소설가 오가와 이토(小川糸, 우측) 씨와 작가 김하나 씨(좌측)와의 대담 내용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작품 속에 표현된 '부재'란.

‘부재(不在)’가 묘사되어 있다는 건, 일본에서도 ‘상실과 재생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평가를 자주 받는데, 아마도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별로 의식한 적이 없지만, 글을 쓰고 난 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서야 ‘아, 내가 그런 주제로 글을 쓰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부재’ 즉 ‘상실’이라는 것. ‘살아 있다’는 건 늘 무언가를 잃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쫓아가기 보다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강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며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발효’시킨다.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리를 좋아합니다. 저는 작품을 쓸 때도 이를 발효시킨다고 생각하며 쓰려고 합니다. 먼저, 일상생활 속

作品の中で表現される「不在」とは。

「不在」というものが描かれているというのは、日本でもよく「喪失と再生の物語」を書いているといった評価をいただくことがあるのですが、恐らく同じ文脈なのだと思います。それは自分ではあまり意識したことがなく,書いた後に他の人から指摘を受けて,「あ,そういうものをテーマにして自分は書いているんだなあ」と気づかされます。

「不在」すなわち「失う」ということ。「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は常に何かを失うことな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その失ったものをずっと追いかけるよりも,今,自分の手の中にあるものを大切にしながら生きていく方が,強く,明るく生きていけ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ながら,物語を書いています。

「物語を「発酵」させる。」

私は時間が解決してくれる,ということが好きです。その意味でも料理が好きです。私は物語を書くときでも,それを発酵させるようなイメージで書くようにしています。まず,日常生活の中

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장소, 이런 사람이 하는 바람을 작품 속에서 형상화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알을 몸 속, 마치 자궁 속에서 어머니가 태아를 키우는 느낌으로 조금씩 키워나가며, 그 아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떠나 보내는 듯한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서두르게 되거나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것처럼 시간에 제약을 받는 게 싫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키워지는 감각을 소중히 여깁니다.

평소에 책을 쓸 때도 독자 여러분들께 말로 전하기 보다는 주변의 공기나 감도는 분위기를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평소 소중히 여기는 것은 느낌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 ‘감각’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말로 전하고 이야기하는 데 매우 서툴러서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좋아해’라고 말하기 보다, 내가 좋아하는 예쁜 꽃을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음식을 만들 때도 ‘힘 내’라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음식에 담아 전할 수 있다면 ‘아끼는 마음’이 상대의 몸 속으로 들어가서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でこういうものがあつたらいいな、こういう場所、人がいてくれたらいいなという希望を物語の中で形にしていきます。

最初は小さな粒を体の中、まるで子宮の中で、お母さんが胎児を育てるような感覚で少しずつ大きく育てながら、その子と同じ時間を過ごして(最後には)飛び立たせる。そんなイメージもあります。急かされたり、誰かに待たれたり、そうした時間を制限されるようなことが嫌いなので、自然の流れの中で育まれるような感覚を大事にしています。

常々、本を書くときに読者の方々に言葉で伝えるというよりは、空気感、周りに漂っている雰囲気というものを五感全てで受け止められる物語を書くようにしています。普段から大事にしているものは感じる事。その場においてどう感じるのか、「感覚」を大事にしています。

私自身は言葉で伝えることや話すことがとても苦手なので、どうしたら自分の気持ちを相手に伝えることができるのかについてよく考えます。

例えば、好きな人がいたら、直接「好き」と言うよりも、自分が好むきれいな花を相手に送るとか、料理を作るときにも、「頑張つてね」という気持ちを言葉で表現するのではなく、その気持ちを料理に込めて伝えられれば、「想い」というのは相手の体の中に入り込んで、健康を維持する役目を果たしてくれると思います。今日ではEメールという手段がありますが、全く同じ文章を書くとしても、Eメールで送るよりも、自分の気持ちに合う便せんやペンを選んで、決して美しい字ではなくても心を込めて書き、最後に切手を貼る時には相手がどのような切手なら喜んでくれるのかを想像して貼ります。そうして完成させた手紙は相手への伝わり方がまた違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平日は作家、週末は料理家』である小川糸さんの料理家としての側面とは。

料理家として「しあわせ」を感じる瞬間というのは、頻繁にあります。例えば、八百屋に行って、旬のものを家に持ち帰って台所の一角に置いて、「ぱっ」と見た瞬間に、なんてきれいなんだろう…！と本当にしみじみと感じ、こんなに美しいものが世の中にあるんだなぁと感動します。

『食堂かたつむり』という作品にも登場する「ぬか床」で言えば、ぬか床を作った人の手の平にある乳酸菌がぬかの味を作っ





오늘날에는 이메일이라는 수단이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이메일로 보내기보다는 자신의 감성에 어울리는 편지지와 펜을 골라, 결코 예쁜 글씨가 아니더라도 진심을 담아 쓰고, 마지막으로 우표를 붙일 때는 상대가 어떤 우표를 좋아할지 상상을 하며 붙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편지로 전하는 마음은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평일에는 작가로, 주말에는 요리사로 보내는 오가와 이토 씨의 요리사로서의 면모는?

요리사로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가게에 가서 제철 채소를 사서 집에 가져와 주방 한 칸에 놓아 두었다가 '문득' 이를 보게 된 순간, '어쩌면 저리도 예쁠까!' 하고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느끼며 '세상에 이렇게 예쁜 것들이 있구나' 하고 감동합니다.

'달팽이 식당'이라는 작품에도 등장하는 '누카도코(장아찌를 담글 때 쓰는 쌀겨 된장)'로 말할 것 같으면, 만드

います。なので、ぬか床が仮に100個あったら、100通りの味が誕生するのです。

韓国語の表現の中に 손맛(手の味)という表現があると聞きました。日本語では「塩梅」という言葉に当たるのかなと思います。確かに、同じレシピで、同じ方法で作っても、その人の考え方によって料理の味が変わります。「塩加減」というのはまさにその人の微妙なさじ加減、その人の考えが反映されたものだと思います。そういった意味で、손맛(手の味)という表現はとてもすてきな言葉だと思います。

손맛(手の味)と同じロジックで、「乳酸菌」がぬか床の中に生きているので、その人が例え死んでしまってもぬか床の中にその人が生き続けている、と考えられ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私は、料理というものは自分の分身のようなもので、その人の命の欠片が含ま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実際に、私は現在、大豆と麴、塩を使って自分でお味噌を作っています。日本語には「手前味噌」という、「自分で自分を褒める」意味を表す表現がありますが、「自分の手で作ったお味噌がやっぱり一番おいしい」ということはあると思います。私に



는 사람의 손바닥에 있는 유산균이 누카도코의 맛을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누카도코가 100개 있다고 치면, 100가지 맛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에는 손맛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어의 ‘안바이(塩梅)’라는 말과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똑같은 도구를 써서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도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집니다. 맛을 내는 데는 그야말로 그 사람의 미묘한 손대중, 그 사람의 센스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손맛이라는 표현은 아주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맛과 같은 이치로 ‘유산균’이 누카도코 속에 살아 있으므로, 만일 그 사람이 죽더라도 누카도코 속에 그 사람의 생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요리는 자기 분신과 같아서 그 사람의 생명 조각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현재 콩과 누룩, 소금을 사용해 저만의 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제 손으로 만든 된장(手前味噌)’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한다’는

とても自分で作ったお味噌がやはり, 自分の体に最も違和感なく自然に入ってくるように感じています。自家製のお味噌はすぐには食べられず, 長い間寝かしておくとどんどん熟成されて, まろやかになります。ばらばらだった材料が1つになっていく過程なのです。仮に, 自分が死んでからもそのお味噌さえあれば, まるで自分が生き続けていくような感覚になる氣もします。

「読者にとって作品は『実用書』であってほしい。」

どんな作品を書くときも, 読者にとって幅広い意味での実用書であってほしいと思って書いています。読んでくれる人の人生の中で, 何かしらの形で役に立つようにという思いです。食べ物で例えるならば, 水のような存在でしょうか。水は生きていく上で必需品です。特に, 夏の暑い日に美味しくて冷たい水を飲んでいるような感覚を, 作品を読んでいる時, 読んだ後に感じてほしいと思います。

以前, 読者の方が送ってくださる感想の手紙の中に, 「自分の本棚に置いておきたい本です」という一文がありましたが, 本当に嬉しいです。この方と1対1で人生の一部を共有できたよ

의미가 있는데, ‘역시 제 손으로 만든 된장이 가장 맛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든 된장이 제 몸에 가장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입니다. 수제 된장은 바로 먹을 수 없고 오랫동안 재워 두면 점차 숙성되어 맛이 순해집니다. 제각각이었던 재료가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혹여 제가 죽은 후에도 그 된장만 있으면, 마치 제가 계속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제 작품이 ‘실용서’였으면 합니다.

어떤 작품을 쓸 때도, 독자 여러분께 폭넓은 의미에서 실용서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읽는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식에 비유하자면 물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물은 살아가는 데 필수품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 맛있는 찬물을 마시는 듯한 감각을, 작품을 읽고 있을 때, 읽고 난 후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독자분이 감상을 적어 보내 주신 편지 가운데, ‘제 책장에 꽂아 두고 싶은 책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분과 일대 일로 인생의 일부를 공유한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음 작품 계획은.

일본에서 가을 무렵에 출판 예정인 작품으로, 30대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린 주인공이, 인생의 마지막에 작은 섬에 있는 호스피스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이 호스피스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간식 시간이 마련됩니다. 호스피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먹고 싶은 간식’을 요청하면, 이 가운데 선택된 간식을 모두 함께 먹습니다. 간식 시간을 즐기면서 인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독자분께 보내는 메시지.

저는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를 읽은 독자 분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을 통해 간접체험을 해 주시는 것도 매우 고맙습니다.

소설가 오가와 이토 내한 기념 대담

오가와 이토 X 김하나

음식과 생활과 이야기,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그 때 먹었던 맛있는 음식으로 떠올린 적 있나요?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주대한민국일본문화대사관이
음식과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쓰는 일본의 소설가
오가와 이토 씨를 초청하여 작가 김하나 씨와 대담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기다립니다.

2019. 7. 3 (수) 오후 4시
주한일본문화대사관 공보문화원 뉴센추리홀

신청 : webmaster@pf.or.kr (선착순 모집)
· 신청자명(참가희망자 전원 기재) / 연락처
· 접수가 완료된 분에게는 참가확정예일을 보내드립니다.
· 일한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문의 : 02-397-2849

주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주대한민국일본문화대사관

소설가 오가와 이토

대부분적 「달팽이 식당」(2008)을 비롯하여 30년 이상의 책을 출판.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서 출판되었으며, 「달팽이 식당」은 2011년에 이탈리아의 반카렐라(Bancarella)상, 2013년에 프랑스의 유제니 브라자르(Eugénie Brazier)상을 수상하였다. 2010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며, 2012년에는 「트리 하우스」, 2017년에는 「조바키 문구점」이 NHK TV에서 드라마화되었다. 「조바키 문구점」과 속편인 「반박반박 공학국」은 일본 전국 서점이 주최하는 「시정대상(本郷大賞)」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2018년 12월에는 한국 외교부가 주최한 「한·일 공감콘서트 「문화를 읽다」」에 초청되어, 작가 가부다 미쓰요(角田光代)와 음악가 양방언 등과 함께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토크쇼 및 낭독회를 진행하였다.

BOOK 주요저서

달팽이 식당(2008) [출판사: 문학]	바나나 및 행복(2015) [출판사: 문학]
초초난난(2011) [출판사: 문학]	이슬꽃이 술은 채로 끝나지 않기를(2017) [출판사: 문학]
페달러 트리(2012) [출판사: 문학]	조바키 문구점(2017) [출판사: 문학]
마들랭과 마들랭의 과거(2012) [출판사: 문학]	반박반박 공학국(2018) [출판사: 문학]
마들랭을 도세요(2012) [출판사: 문학]	마리키의 장갑(2018) [출판사: 문학]
트리 하우스(2013) [출판사: 문학]	

카피라이터 출신 작가, 인터뷰어 김하나

2000년 광고대행사 「제일기획」, 「TBWA KOREA」등을 거쳐 오랫동안 최고의 카피라이터로서 인정받아 왔다. 2006년 아시아태평양광고계 경쟁부문에서 우승, 한국인 최초로 영로티스 상을 수상,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를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현재 예스24 팟캐스트 「책읽어주는 김하나의 독연담」을 진행하고, MBC 라디오 「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 고정적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다양한 곳에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BOOK 저서

달신과 나의 아이디어(2013)
내가 정말 좋아하는 놀이 (2015)
안녕 은키호테 (2017)
15도 (2017)
밤 백기의 가을 (2017)
매자 꽃이 살고 있습니다 (2019)



한국에서 박물관, 전통 정원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깊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전통 가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는 위치에 창문을 달고, 창밖으로 보이는 먼 산들을 마치 자신의 마당처럼, 자연을 즐기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가구박물관에서 관람한 어떤 고가구 표면에는 산 문양이 있었습니다. 이 문양은 나중에 그린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자연스럽게 표면에 무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자연의 흐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감성은 일본인에게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에도 '차경(借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본인의 감각과 (한국인들의 감각이)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이 언어는 다르지만,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서도 공감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한국의 독자 여러분과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제게도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제 작품을 가장 많이 번역해주는 나라로서, 책이 출판될 때마다 표지가 너무 아름다워 매번 완성을 기대하게 됩니다. 제 작품을 소중하게 읽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うな喜びを感じます。

次の作品の予定は。

日本で秋頃に出版予定の作品は、30歳代の若さで不治の病を患ってしまった主人公が、人生の最後に小さな島にあるホスピスに入って、自身の人生を振り返るという内容の作品です。このホスピスでは毎週日曜日の午後3時からおやつの時間が設けられています。このホスピスに住んでいる人々が「人生の最後に食べたいおやつ」をリクエストして、その中で選ばれたおやつをみんなで一緒に食べます。おやつの時間を楽しみにしながら人生を終えるという内容です。

韓国の読者の方々へのメッセージ。

私は「書くこと」が好きです。自分が好きなことをして、それを読者の方々が喜んでくれるということはとてもすてきなことだと思います。私の作品を読んで、その作品を追体験してくれることも、とてもありがたいです。

韓国で博物館や伝統庭園などを見学するプログラムを通じて、韓国文化について深く触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こで見た伝統家屋では、一番美しい景色が見える位置に窓を取り付けて、窓から見える遠い山々をまるで自分の庭のように自然を楽しむ文化があることを知りました。

また、家具博物館にて観覧した、ある古い家具の表面には山の模様がありました。この模様は後から描いたものではなく、時間の経過とともに、表面に模様が自然と浮かび上がってきたそうです。韓国の人々が自然の流れの中に美しさを見出す感性には日本人にも通ずるものがあると感じました。

日本にも「借景」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自然に寄り添って暮らしている日本人の感覚に(韓国の方々の感覚が)近いと感じました。だからこそ、自分の作品も言語こそ違いますが、韓国読者の方々も共感していただけるのかなと思います。

国の垣根を越えて、韓国読者の方々に直接会うことができたのは私にとっても幸せなこと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韓国は私の作品を一番多く翻訳してくれている国で、出版されるたびに本の装幀がとても美しいので、毎回完成するの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作品を大切に味わってくださり、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겐로쿠엔의 야경(Photo : 이시카와현 관광연맹)

이시카와현과 전라북도의 교류

이시카와현(石川県)은 혼슈(本州)의 거의 중앙인 일본해 측에 위치한다. 지형은 남북으로 길고 면적은 약 4,186km²이며, 총인구는 1,137,665명(2019년 4월 1일 현재)이다. 현청 소재지인 가나자와시(金沢市)는 국가의 지방출장소, 금융·회사 지점 등 중추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행정과 경제면에서 호쿠리쿠(北陸) 3현의 핵심적인 존재다. 일본의 3대 도시인 도쿄, 오사카, 나고야로 접근하기도 좋다. 또 이시카와현은 에도시대(1603~1867)에 절정을 이룬 가가 하쿠만고쿠(加賀百万石) 문화가 지금도 살아 숨쉬는 문화의 현이다. 전쟁이나 지진 같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兼六園)을 비롯해서, 영주가 다스리던 시기의 모습을 남긴 아름다운 거리 등 귀중한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으며, 뛰어난 전통공예와 전통문화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시카와현의 자매도시 교류

이시카와현과 전라북도는 2001년 9월 우호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청소년, 문화, 환경, 스포츠 등 폭



영선중학교와 교류하는 모습

넓은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교류는 매년 파견과 수용을 번갈아 하면서, 차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이 언어와 관습의 벽을 넘어 우정을 키우고 있어, 양국의 우호 교류 촉진을 위해서도 매우 뜻 깊은 사업이다. 작년에는 이시카와현 중학생 12명이 전라북도를 찾아, 학교 방문과 홈스테이를 통해 동 세대 청소년과 돈독히 교류를 나누며, 평생 잊지 못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관광지로서의 이시카와현

이시카와현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이 가운데 일부를 소개한다.

겐로쿠엔과 가나자와성 공원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로, 에도 시대의 대표적인 다이묘 정원인 겐로쿠엔(兼六園)은 봄 벚꽃, 초여름 제비꽃, 가을 단풍, 겨울 눈보라의 아름다운 사계절이 방문객을 매료시키며, 일본의 특별 명승지가 되었다. 미술랭 그린 가이드 재팬(미술랭 관광판)에서는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차지했으며, 해외 관광객에게도 인기 있는 명소다.

겐로쿠엔에 인접한 가나자와성(金澤城) 공원은 일본의 중요문화재인 이시카와문(石川門), 산짓켄나가야(三十間長屋)와 복원 정비된 히시아구라(菱櫓), 고짓켄나가야(五十間長屋), 가호쿠문(河北門), 하시즈메문(橋爪門), 교쿠센인마루데이엔(玉泉院丸庭園) 등 볼거리가 많다. 다양한 돌담을 둘러보는 것도 즐길 거리 중 하나다.

조용히 산책하고 싶다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가나자와성 공원에서 주말(금, 토, 경축일 전날)에 조명이 켜지면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을 즐길 수 있다. 한시적으로 열리는 겐로쿠엔의 라이트 업은 공원을 환상적인 공간으로 연출한다. 가나자와시 중심부의 주요 라이트 업 명소를 약 50분 동안 운행하는 운행일 한정 버스를 이용해서, 밤의 가나자와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시카와현이 자랑하는 인기 관광명소다.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지향하는 현대아트미술관이다. 특히, 레안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Photo : 가나자와시)

드로 엘리히의 작품인 스위밍 풀(통칭:레안드로의 풀)은 놓칠 수 없다.수영장을 매개로 지상과 지하의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화제의 작품이다.

※2019년 12월 20일(금)~2020년 2월 3일(월)까지 공사로 전관 휴관한다.

가가 온천향

가나자와에서 조금만 가면, 야마나카(山中), 야마시로(山代), 가타야마즈(片山津), 아와즈(粟津)의 4개 온천지로 이루어진 가가 온천향(加賀温泉郷)이 있다. 계곡을 따라 일본식 여관과 호텔이 이어지는 야마나카 온천은, 경승지인 가쿠센케 계곡(鶴仙溪)과 접하고 있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야마시로 온천에는 메이지 시대(明治時代)의 공동 탕을 복원한 탕이 있어 옛날 그대로의 입욕 법도 체험할 수 있다.시바야마가타(柴山潟)의 호반에 위치한 가타야마즈 온천은 아름다운 호수와 영봉하쿠산(白山)을 바라보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뗏목이나 사이클링 등 온천 이외의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다.



아마나카 온천

피부에 좋은 미용 온천으로 유명한 아와즈 온천 주변에서는 나타데라(那谷寺) 절과 가가의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유노쿠니노모리(ゆのくにの森) 숲 등 매력적인 관광지가 있다.

치리하마 나기사 드라이브웨이

일본은 물론, 세계에서든 보기 드문 해안을 자동차로 달

릴 수 있는 치리하마 나기사 드라이브웨이(千里浜なぎさドライブウェイ). 그 비밀은 적당히 수분을 머금은 고운 모래 입자가 단단히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푸른 하늘 아래, 부서지는 파도 옆을 상쾌하게 달리면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을 실현할 수도 있는 귀중한 해안이다. 상용 타이어로도 달릴 수 있어, 렌터카로 가볍게 주행할 수 있다. 여행 기념으로 모래사장에서 자동차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어떨까. 낮에는 물가에 자동차를 세우고 물놀이와 바비큐도 즐길 수 있다.

저녁에는 수평선 너머로 저무는 해를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멋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특히 조용히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새벽을 추천한다. 운이 좋으면 아침 안개도 볼 수 있고,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 신비로운 풍경을 독차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자연, 문화, 전통, 예술,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이시카와 현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집필 : 이시카와현, 협력 : CLAIR, Seoul)

치리하마 나기사 드라이브웨이(Photo : 이시카와현 관광연맹)





Photo : 사이트 공방

홋카이도의 중심 아사히카와시와 수원시의 교류

아사히카와시(旭川市)는 인구가 34만 명인 홋카이도의 제 2 도시다. 홋카이도의 중심이라는 입지를 살려 관광, 물류의 거점이 되고 있다. 또 최근 아사히카와 공항에 국제선 터미널이 완성되어, 전 세계에서 접근하기 쉬워졌다.

시내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旭山動物園)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동물원이다. 일찍이 행동 전시라 불리는 방법을 도입해 동물의 겉모습이 아닌, 동물이 본래 지닌 습성과 행동을 끌어내고 있다. 2006년에는 연간 방문자수가 300만 명을 넘어, 일본에서 2위를 차지하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인기를 얻고 있다.

아사히카와시는 자연환경도 풍요롭다. 가미카와 분지(上川盆地)에 위치하여, 연간 기온차가 50도 이상으로 뚜렷한 사계절을 즐길 수 있다. 또 인근에는 2,000m급 산이 이어진 다이세쓰잔(大雪山) 연봉이 있으며, 산록에서 풍부한 온천이 솟아나고 있어, 유명 온천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기타, 아사히카와 라면, 사케 등의 특산품과 약 100만 명이 찾는 아사히카와 겨울 축제 등 관광자원으로도 유명하다.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

아사히카와시는 경기도 수원시와 자매도시다. 1989년 10월 17일,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래, 복지, 문화, 스포츠, 청소년 등 민간 교류를 계속해 오고 있다. 또, 1년 동안 시 직원의 상호 파견과 대표단 방문 등, 민간뿐 아니라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5년마다 두 도시의 인연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사히카와시 관광에 대해

아사히야마 동물원

일본 최북단의 동물원으로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약 15만 2000㎡의 부지에 107종, 647마리(2018년 10



월 1일 기준)의 동물을 사육, 전시하고 있으며, 행동 전시를 통해 동물 본연의 움직임, 수영, 비행 등 생생한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동물원에는 없던 방법이 인기를 끌면서 일본 국내에서 많은 사람이 찾게 되었다. ‘오물 오물 타임’이라 불리는 먹이 시간에도 행동 전시 기법을 활용한 야생에 가까운 생존 환경을 정비하여,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또 겨울철 운동 부족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작된 펭귄의 산책은 동물원에서도 손꼽히는 인기 행사다.

산로쿠 거리

삿포로 스스키노에 이어, 도호쿠 지방 최고의 번화가로서 약 1,000개의 음식점이 영업하고 있다. 아사히카와시 일대의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 깨끗한 물로 기른 농축산물 외에, 특산물 사케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물류 거점으로서 홋카이도를 둘러싼 삼면의 바다에서 해산물이 나기 때문에, 육지지만 신선하고 다양한 종류의 어패류를 맛볼 수 있는 가게가 많다. 아사히카와 라면 등 이 지역의 맛집도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이면 지역 주민부터 관광객까지 많은 사람으로 붐빈다.

아사히카와시 이벤트

아사히카와 여름 축제(8월)

시작을 알리는 도신 여름 불꽃 대회(道新納涼花火大会)에서는 약 4,500발의 폭죽이 터진다. 또 약 2,500명의 시민





이 일사불란한 춤을 선보이는 시민 무용 퍼레이드, 여러 대의 미코시(神輿, 가마)가 거리를 누비는 다이세쓰렌고 미코시(大雪連合神輿) 외에 산로쿠 거리에는 수많은 노점이 생기고, 특설 무대에서는 관람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다베 마르쎬(9월)

아사히카와 근교를 중심으로 도호쿠 지방의 농산물 직거래 및 요리를 제공하는 음식 축제이다. 아사히카와 시내 중심부 행사장에는 약 300점의 점포가 출전하며, 약 1.7km에 이르는 거대 시장(마르쎬)이 생긴다. 2010년 제1회가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100만 명 규모의 방문객을 자랑하며 정기적인 가을 이벤트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 교류하는 도시에서도 출전하여, 지금까지 가고시마현 미나미사쓰마시와 아이치현 기타나고야시의 물산이 출전하는 등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카와 겨울 축제(2월)

매년,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을 자랑하고 있다. 주요 행사장은 메인 설장이 있는 아사히바시카한 회장(旭橋河畔会場)과 얼음 조각 세계대회가 개최되는 헤이와도오리 가이모노공원 회장(平和通買物公園会場)이 있다. 메인 설장은 세계 최대급 대형 설상으로 과거에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 그 외에 아사히바시카한 회장에서는 음식점이 들어서고, 특별 게스트를 초청한 스테이지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가이모노공원 회장에서 열리는 얼음 조각 세계대회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국제대회로서, 일본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참가 응모가 있다. 완성된 작품에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면서 겨울의 가이모노공원을 수놓는다. 기회가 된다면, 사계절 풍경과 독특한 특산품 등이 매력적인 아사히카와시를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집필 : 아사히카와시, 협력 : CLAIR, Seoul)



아시카가 플라워파크의 등꽃

도치기현의 숨은 매력

도치기현(栃木県)은 도쿄에서 북쪽으로 약 100km에 위치하며, 신칸센으로 1~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이다. 도쿄에서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라 세계문화유산인 닛코(日光)를 방문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도치기현의 매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이나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뛰어난 원천수를 자랑하는 온천 등 도심에서 가깝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환경에 둘러싸인, 아는 사람만 아는 리조트지다. 이번 호에서는 숨은 명소 도치기현의 매력을 소개한다.



닛코 도쇼구의 요메이몬

꿈의 세상처럼 환상적인 아름다움, 아시카가 플라워파크의 등꽃

도치기현 아시카가시(足利市) 아시카가 플라워파크에서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꽃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CNN 세계의 꿈의 여행지 10선에도 선정된 등꽃이다. 보라색 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이 세상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지만, 그 매력은 이뿐만 아니다.



국제적 피서지 오쿠 닛코

사랑스러운 분홍 등꽃, 눈처럼 하얀 등꽃, 눈에도 선명한 노란 등꽃의 총 4색 등꽃이 한 달에 걸쳐 차례로 핀다. 또, 밤에만 즐길 수 있는 조명을 받은 등꽃도 볼만하다.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등꽃 향기에 흠뻑 취해서 보내는 밤은, 실로 꿈같은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한겨울에 즐길 수 있는 등꽃이다. 작은 꽃잎 하나, 하나까지 충실하게 재현한 일루미네이션 대형 등꽃이다. 음악에 맞춰 반짝이는 연출은 겨울만의 절경이다.

각국 인사가 사랑하는 국제적 피서지 오쿠 닛코

닛코(日光) 하면 세계유산인 닛코의 신사와 사찰이 유명하지만, 그 안쪽으로 펼쳐지는 오쿠 닛코(奥日光)라 불리는 지역도 있다. 오쿠 닛코는 닛코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자연이 풍요로운 곳이다. 한여름에도 평균 최고 기온이 20℃ 전반으로 매우 시원하며, 일본에서 가장 표고가 높은 위치에 있는 주젠지코(中禅寺湖) 호반은 예전에는 각국 대사관이나 외교관의 별장이 들어선 국제적인 피서지

였다. 지금은 영국 및 이탈리아 대사관 별장이 기념공원으로 일반 공개되고 있으며, 당시 외교관들이 보았던 멋진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여름의 아름다운 녹음 외에, 가을에는 멋진 단풍도 감상할 수 있어 다가오는 계절에 추천하고 싶은 장소다.

딸기 왕국 도치기

도치기현에서 가장 유명한 것 하면 역시 딸기가 아닐까.



50년 연속 일본 최고 생산량을 차지했으며, 달고 굵은 품질 좋은 딸기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딸기 따기 체험이나 직판장에서 본연의 맛을 마음껏 즐기는 것도 좋으며, 매장마다 최고 실력을 발휘해서 만든 스위츠를 맛보는 것도 좋다. 즐기는 방법도 매우 다양해서 하루 만에는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도치기현의 우유 생산량은 홋카이도에 이어, 일본 2위를 자랑한다. 신선한 우유를 사용한 일품 치즈나 스위츠도 꼭 드시기 바란다.

온천 파라다이스! 일본 유수의 원천수를 자랑하는 온천

도치기현에는 간토 최고인 630여 곳에서 원천수가 용출하고 있으며, 어깨 결림 등 피로 해소에 좋은 탕, 피부 미용에 좋은 탕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온천을 즐길 수 있다. 온천 시설도 많은데, 약 1400년의 역사를 지닌 명탕부터 현대적으로 변형된 럭셔리 온천까지 다양하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수영장 차림으로 즐길 수 있는 온천 풀도 추천한다. 기호에 맞는 온천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변화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닛코의 신사와 사찰

세계유산으로 유명한 닛코의 신사와 사찰이지만, 최근 대규모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닛코 도쇼구(日光東照宮)의 대명사인 국보 요메이문(陽明門)은 2017년 44년 만에 대규모 보수를 마치고, 장인의 최고 기술에 빛나는 휘황찬란한 조각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닛코산 린노지(日光山輪王寺)에서도 2개 신사와 1개 사찰로 이루어진 최대 사쿠라문(桜門)인 다이유인 니텐문(大猷院 二天門)이 56년 만에 대규모 보수를 마치고, 작년에 공개되었다. 마치 준공 직후 같은 아름다운 색과 빛을 볼 수 있는 것도, 지금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다.

맺음말

도치기현의 소중한 정보를 소개하였는데, 이번에 미처 알리지 못한 장소를 포함해서, 수많은 매력으로 가득한 멋진 지역이다. 일본 방문 시, 도치기에 머물면서 도치기현이 자랑하는 자연, 역사, 온천 등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



도치기현 공식관광홈페이지(한국어)

잘 오셨습니다! 도치기 탐방

URL : <https://travel.tochigiji.or.jp/ko/>

(집필 : 도치기현, 협력 : CLAIR, Seoul)

온천 파라다이스 도치기





오이라세 계류

다채로운 색으로 물드는 아오모리현의 가을

아오모리현(青森県)은 일본 혼슈(本州)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쪽, 동쪽, 서쪽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白神山地)와 핫코다산(八甲田山)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 봄 벚꽃, 여름 축제, 가을 단풍, 겨울 눈 등 사계절 매력이 넘쳐나며 언제든지, 몇 번을 방문해도 새로운 발견이 있는 곳이다. 아오모리현에서 가장 뜨겁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여름 축제 기간이 지나면, 1년 중 가장 선명하고 다양한 색으로 단풍이 드는 계절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보기에선 선명한 아오모리현의 단풍을 중심으로 가을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를 소개한다.

오이라세 계류(만개 : 10월 하순)

아오모리현 중앙 남부에 있는 도와다코(十和田湖) 호수에서 유일하게 흘러나오는 오이라세가와(奥入瀬川) 강의 가장 상류인 약 14km가 오이라세 계류(奥入瀬溪流)다. 일본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관광지로서,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 사계절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있다. 계곡을 따라 산책길이 나 있어 숲속에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주변의 수많은 폭포와 울긋불긋 노랗게 물든 단풍을 즐기며,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도와다코(만개 : 10월 하순)

도와다코는 약 20만 년 전에 시작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칼데라호로 호수 면의 표고가 400m, 가장 깊은 수심이 327m에 이르며, 호수를 둘러싼 외륜산이 단풍으로 물드는 계절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도와다코의 단풍은 외륜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것 외에, 유람선과 카누를 타고 호수 위에서 올려다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것도 아주 좋다.



도와다코

핫코다산(절정 : 산 정상 10월 상순, 산 중턱 10월 10일 내외, 산록 10월 중순부터 말)

핫코다산은 아오모리현 중앙에 위치하며, 해발 1584m의 최고봉 오다케(大岳)를 비롯해서 많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풍은 9월 하순 무렵, 산 정상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고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핫코다산을 구성하는 다모야치다케(田茂菰岳, 해발 1324m)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산 정상까지 약 10분동안 주위가 온통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산 정상의 표주박 모양 산책길에서 산책도 즐길 수 있다.



핫코다산

나카노 모미지산(절정 : 10월 중순)

아오모리현 구로이시시(黒石市)에 있는 나카노 모미지산(中野もみじ山)은 1802년 이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가 교토에서 단풍 나무 묘목을 가져와 심은 것이 처음으로, 현재 현에서도 손꼽히는 단풍 놀이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낮에 보는 단풍도 멋지지만, 야간에 조명을 받아 보이는 환상적인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다.

라이트 업 : 2019년 10월 12일(토)~11월 4일(월) 저녁까지

히로사키 공원(절정 : 10월 하순~11월 초)

벚꽃으로 유명한 히로사키 공원(弘前公園)이지만, 단풍철에도 2,600그루의 벚나무와 1,000개의 단풍나무가 아름답게 물들면서, 벚꽃 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또 이 시기에는 '히로사키성 국화와 단풍 축제'가 개최된다. 단풍과 함께 국화로 장식된 화려한 인형 등 수많은 국화꽃이 전시된다. 단풍과 국화꽃을 즐기며 바라보는 이와키산(岩木山)도 각별하다.

히로사키성 국화와 단풍 축제 : 2019년 10월 18일(금)~11월 10일(일)

주니코(절정 : 10월 중순~10월 하순)

아오모리현 후카우라정(深浦町)에 33개 호수로 이루어진 주니코(十二湖) 호수는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산지 아래 펼쳐진다. 주변이 너도밤나무 숲을 이루고 있어,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든 나무가 호수에 비추면서, 한층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낸다. 선명한 청자 빛으로 물든 푸른 호수와 아름답게 물든 너도밤나무 오솔길을 걸으면서 시라카미산지의 가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핫코다산 로프웨이



나카노 모미지산

사과

아오모리현의 가을 하면, 단풍 외에 일본 최고인 사과를 빼놓을 수 없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면, 현 내의 과수원에서 홍색과 청색 사과가 휘어지게 달린다. 쓰가루(津軽) 지방 곳곳에서 익어가는 사과를 보면서 관광 사과농원에서 직접 수확한 사과를 맛보는 것도 아오모리의 가을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다.

사과 수확 체험: 11월 중순경까지

논 아트

아오모리현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쌀의 산지다. 아오모리현 이나카다테무라(田舎館村)에서는 7색의 벼를 사용해서 논바닥을 캔버스 삼아, 예술 작품을 만든다. 매년 디자인을 달리하는데, 올해는 옛날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은 TV 드라마와 현재 방송 중인 어린이 대상 TV 프로그램을 소재로 그렸다.

한국 사람들은 디자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실물을 보



주니코 비도밤나무숲

는 것만으로도 그 멋진 모습에 놀라게 될 것이다. 불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논 아트: 2019년 9월 29일 벼 베기를 실시한다.

맺음말

아오모리현은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직항편이 취항하고 있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한 장소 외에도 매력적인 콘텐츠가 많으니, 일본의 원풍경이 남아있는 아오모리현을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집필: 아오모리현, 협력: CLAIR, Seoul)



아오모리 사과와 이와키산



논 아트



여름이 더욱 아름다운 홋카이도 北海道

영화 러브레터와 겨울 뮤직비디오의 단골 촬영지로 홋카이도 하면 겨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일본에서 홋카이도는 겨울보다는 여름 휴양지로 인기가 높으며, 대부분의 관광객이 여름에 홋카이도를 찾는다. 홋카이도는 일본 최북단에 위치해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으며 하절기에 낮이 길어 시원하고 시간 걱정 없이 여유롭게 둘러보기에 좋다. 새하얀 눈으로 덮인 설국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다양한 색의 꽃과 초록 숲, 싱그러운 자연의 여름 홋카이도를 찾았다.

여름 홋카이도 여행의 시작 비에이(美瑛)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홋카이도 중부의 작은 농업 마을인 비에이다. 홋카이도의 교통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삿포로(札幌)에서 차나 버스로 2시간, 열차를 이용한다면 인근 도시인 아사히카와(旭川)에서 40~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인 비에이는 대부분이 농경지인 조용한 마을이었으나, 사진가 마에다 신조(前田眞三)의 풍경 사진과 일본의 다양한 CF에 등장하면서 인기 관광지로 알려지게 되었다. 유럽을 연상케 하는 깔끔한 주택이 비에이 역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비에이 역과 비바우시 역 일대에는 패치워크노미치(パッチワークの路), 파노라마 로드(パノラマロード)라 불리는 홋카이도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가 있다. 천천히 걸어서 둘러봐도 좋지만 워낙 지대가 넓기 때문에 자전거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언덕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빌릴 때는 전기자전거를 추천한다.

패치워크노미치는 연작을 방지하기 위해 구획된 밭에 각기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이 천 조각들을 이어 붙여

1장의 큰 천을 만드는 수공예인 패치워크와 비슷해서 '패치워크의 길'이라는 뜻의 패치워크노미치로 불리게 되었다. 패치워크노미치에는 피라미드 전망대가 인상적인 전망 공원인 호쿠사이노오카 전망 공원(北西の丘展望公園), 지역의 청년들이 조성한 아름다운 화원 제루부의 언덕(ぜるぶの丘), 아토무노오카(亜斗夢の丘), 1970년대 낫산 자동차 CF에 등장하며 유명해진 켄과 메리의 나무(ケンとメリーの木), 1967년 담배 세븐스타의 포장지에 이곳의 나무가 등장하여 이름 붙여졌다는 세븐스타의 나무(セブンスターの木), 1978년 담배 마일드세븐 CF에 나온 언덕길 마일드세븐 언덕(マイルドセブンの丘), 큰 나무 두 그루 사이의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부모와 자식과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오야코(부자) 나무(親子の木) 등이 있다. 파노라마로드는 비에이 역 동남쪽과 비바우시(美馬牛) 역 주변으로 소소한 시골 마을과 아름다운 언덕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캐논 CF의 촬영지이자 비에이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시키사이노오카(四季彩の丘), 비에이를 알린 일본의 풍경 사진가 마에다 신조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다쿠신칸(拓真館), 파노라마 로드의 360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지요다노오카(千代田の丘), 석양이 아름다운 언덕 산아이노오카(三愛の丘), 산아이노오카 뒤편의 조금 높은 언덕 공원 신에이노오카 전망공원(新栄の丘展望公園), 홋카이도의 상징처럼 관광포스터에 항상

등장하는 크리스마스트리의 나무(クリスマスツリーの木) 등이 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철학의 나무와 마일드세븐 언덕의 나무

비에이의 대부분은 농경지이며 주인이 있는 사유지다. 관광객이 늘어나며 사진을 찍기 위해 농경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처음에는 울타리를 치고 안내문을 나누어 주며 경고했지만, 조금 더 나은 사진을 찍기 위한 사람들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주민들은 분노하게 되고, 이들이 타 지역에서 묻혀 온 흙의 바이러스가 이 농경지에 침투해 농사를 망치게 되자, 모델이 되는 나무들을 베어버리게 된다. 예전 소니 CF에 등장하며 소지섭 나무라고도 불리던 철학의 나무, 마일드세븐 언덕 위의 나무들이 희생하게 되는데, 이는 매너를 지키지 않은 관광객의 욕심 때문일 것이다. 비에이의 거리를 걸을 때는 정해진 장소로만 다니며 농경지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비에이에서 2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시로가네 온천(白金温泉)에는 최근 관광명소로 인기가 높아진 청의호수, 흰수염 폭포 등이 있으며 비에이를 들렀을 때 함께 구경하면 좋다. 청의 호수는 1988년 도카치산의 화산 분출 시 화산 이류 현상을 위해 만든 제방에 물이 고여 연못이 되었고, 인근의 시로가네 온천에서 솟아나는 수산화 알루미늄



비에이 패치워크노미치



비에이 마을 전경



비에이 마을 전경



패치워크노미치



켄과 메리의 나무



호쿠사이노오카 전망공원



후쿠사이노오카 전망공원 전망



세븐스타의 나무



세븐스타의 나무 주변의 자작나무들



마일드 세븐 언덕



오야코 나무

성분을 함유한 물이 흘러들면서 연못의 물이 파랗게 되어 신비한 풍경을 가진다. 이곳을 촬영한 겐토 시라이시(ケント白石)의 풍경 사진은 맥 OS의 배경화면으로 선정되어 청의 호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흰 수염 폭포(白髭の滝)는 시로가네 온천의 온천 수가 실처럼 하얗게 쏟아져 내려 하얀 수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인근의 계곡 역시 파란 빛을 띠며 절경을 이룬다.

홋카이도 여름 여행의 백미 후라노(富良野)

비에이에서 차로 30~40분, 열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후라노, 비에이와 함께 홋카이도 중부의 농경지대로 비에이가 구릉이라면 후라노는 평야가 많은 편이다. 후라노, 나카후라노(中富良野), 가미후라노(上富良野) 등 여러 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볼거리가 많다. 7,8월 여름 시즌에는 라벤더로 유명한 농장 팜도미타 인근에 라벤더 바타케역(ラベンダー畑駅)이라는 임시 역이 생기며 후라노 비에이 노롯코호(ノロッコ号)라는 관광열차도 다닌다.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라벤더밭 팜도미타(ファーム富田)

후라노의 라벤더밭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1976년 국철(현, JR)의 달력에 팜도미타의 아름다운 사진이 소개되고 나서부터다. 라벤더 산업이 쇠퇴하던 시기에 큰 이슈를 일으키며 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가 후라노로 모여들면서 재배 작물을 바꾸었던 농장들도 다시 라벤더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팜도미타의 실내 화원에 가면 라벤더가 피기 전인 4~5월에도 라벤더를 볼 수 있다. 팜도미타에서는 라벤더 추출액을 이용한 에센셜 오일, 라벤더 비누 등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 에센셜 오일은 1990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라벤더 페어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팜도미타 바로 옆에는 도미타 멜론하우스(とみたメロンハウス)가 있으며 홋카이도의 달콤한 멜론과 이를 이용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팜도미타의 북쪽 가미후로노역 인근에는 역시 라벤더로 유명한 히노데 공원(日の出公園)이 있다. 언덕 위에 그리



스식의 하얀 아치로 되어 있는 사랑의 종(愛の鐘)으로 잘 알려진 라벤더 화원이다. 사랑의 종 옆에는 후라노의 꽃 향기를 담아 편지를 보내라는 의미가 담긴 '사랑의 우체통'도 함께 서있기 때문에 연인, 부부끼리의 여행이라면 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후라노, 비에이에서 손꼽히는 풍경이지만 여름 시즌을 제외하고는 '사랑의 종'을 파란색 비닐에 감싸 둔다.

후라노의 또 하나의 라벤더 명소는 나카후라노역 인근의 사이카노오카(彩香の丘) 6ha의 넓은 부지에 라벤더가 심어져 있으며, 다른 후라노의 라벤더 명소보다 사람이 많지 않아 조금 더 여유롭게 사진을 찍고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홋카이도의 마지막은 맥주와 함께 삿포로 비어 가든

비에이, 후라노에서 홋카이도의 여름 풍경을 만끽하고 삿포로로 돌아온다. 낮이 긴 여름에는 온종일 꽃 구경을 하고 삿포로에 돌아와도 아직 해가 지지 않는다. 여름 삿포

로 시내에서는 시원한 맥주 축제인 '삿포로 오도리 비어 가든(さっぽろ大通ビアガーデン)'이 삿포로 시내 중앙인 오도리 공원(大通公園)에서 열린다. 오도리 공원은 삿포로 최대의 시민 공원으로 동서로 길게 구성되어 있다. 공원의 중심에는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 정원이 있으며, 화단, 분수, 잔디밭 등이 나란히 이어져 있다. 홋카이도 개척 당시 계획 도시로 조성된 삿포로 시내에는 북쪽에는 도청사를 비롯한 관청이, 남쪽에는 상점가와 주택 등이 들어섰다. 이 두 곳 사이의 방화선 역할을 위해 조성된 것이 오도리 공원이다. 공원의 한쪽 끝에는 삿포로의 상징 중 하나인 147m의 철탑인 삿포로 텔레비 탑(さっぽろテレビ塔)이 있다. 맥주 축제인 비어 가든에서는 산토리, 아사히, 기린, 삿포로 등 일본을 대표하는 맥주회사의 비어 가든이 열리며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다 보면 어느새 홋카이도의 밤이 찾아온다.



유후인(국도)

규슈의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에서 만난 미치노에키

후쿠오카(福岡), 유후인(由布院)은 일본 규슈의 도시로 한국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인기 관광지다. 열차나 버스를 이용하여 이 지역을 둘러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편수가 많지 않고 늘어난 관광객으로 공급이 부족해 대중 교통이 아닌,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후쿠오카와 유후인, 오이타(大分) 사이에는 산과 협곡을 가로지르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오이타 고속도로가 있어 편하게 드라이빙을 즐



미치노에키 유키하



치쿠고평야



우키하의 특산물 매장



레스토랑 가라우스의 향토요리

길 수 있으며,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그냥 스쳐 지나갔던 온천, 계곡, 폭포 같은 곳도 여유롭게 구경하며 지날 수 있다. 약 100km(후쿠오카 고속도로 포함 150km) 정도의 도로 곳곳에는 운전자들의 작은 쉼터이자 지역의 문화공간인 고속도로 휴게소 미치노에키를 만날 수 있다.

규슈 NO.1의 미치노에키, 미치노에키 우키하(道の駅うきは)

후쿠오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오이타 고속도로를 들어서서 잠시 후 하키(杷木) I.C로 빠져나오면, 규슈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미치노에키를 만나게 된다. 미치노에키 우키하는 일본의 여행 잡지 자랑(じゃらん)에서 뽑은 규슈의 미치노에키 랭킹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우키하는 물과 녹색과 과일의 마을(水と緑とフルーツの里)로 신선한 농작물을 수확하는 소소한 지방의 작은 마을이며, 이곳의 미치노에키는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 우키하 미치노에키의 전망대에서는 우키하 지쿠고



평야(筑後平野)의 광활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우키하의 향토요리와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가라우스(からうす)에서는, 아이들의 급식에 그 지역의 돼지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

된 후쿠오카현 우키하의 브랜드 돼지고기인 미노잇톤(耳納いっーとん)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도 맛볼 수 있다. 미치노에키 한편으로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살 수 있는 특산물 매장이 있고, 이를 찾아 연간 130만 명이 이곳을 다녀간다고 한다.

태양열 발전으로 운영하는 에코 휴게소 야마다(山田) SA

다시 국도에서 오이타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오이타현으로 넘어가기 전, 후쿠오카의 마지막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데 여유가 된다면 잠깐 들려보는 것이 좋다. 에코 기술이 도입된 하이브리드 에코 에리어 야마다는 태양열 발전을



물과 녹색과 과일의 마을 우키하



에코 휴게소 야마다 SA



화장실의 소소한 에코 시스템



아마다 SA의 명물 카레 빵



아마가세 온천과 구스강

통해 전력을 충당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코 시스템을 휴게소 곳곳에 도입하여,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된다. 명물인 카레 빵을 비롯해 다양한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레스토랑에는 다양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다.

아름다운 계곡과 폭포 아마가세(天ヶ瀬) 미치노에키 지온노타키쿠스(慈恩の滝くす)

오이타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잠시 여유가 된다면 아마가세 다카쓰카(天ヶ瀬高塚) I.C를 빠져나와 아마가세와 구스(玖珠) 구간의 국도를 달려보는 것도 좋다. 고속도로로는 긴 터널 구간을 지나게 되지만, 국도를 이용하면 구스강(玖珠川)을 따라 아마가세 협곡의 도로를 달릴 수 있다. 구스강의 물 흐르는 소리를 따라 신나는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으며, 중간 중간 도로 옆의 철길을 따라 지나가는 열차, 운이 좋다면 유후인의 관광열차인 유후인노 모리(ゆふいの森) 열차가 협곡을 따라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마가세는 강변에 노천 온천이 많아 저렴



미치노에키 지온노타키쿠스

한 가격에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온천 마을의 끝에는 폭포 사이를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지온노타키(慈恩の滝)라는 폭포가 있다. 폭포 옆에는 미치노에키가 있어 차를 주차하고 천천히 주변의 관광 시설을 둘러볼 수 있으며, 오이타현의 다양한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음 고속도로 진입로인 구스(玖珠) I.C 입구에는 분고모리(豊後森)라는 예쁜 역이 있으며, 역 주변의 공원에는 증기 기관차가 다녔던 때의 시설들이 남아 있어 함께 구경하면 좋다.

오이타 고속도로의 마지막 절경

벳푸 완 스마트(別府湾スマート) IC

유후인을 지나 오이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휴게소가 벳푸 완 스마트 I.C이다. 대부분 관광객의 최종 목적지인 벳푸의 입구에 있는 휴게소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꼭 한번 둘러보는 것이 좋다. 휴게소 앞 전망대에서 보이는 벳푸완(別府湾)의 절경과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대학(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



폭포 뒤를 지나갈 수 있는 지온노타키 폭포



무라타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레스토랑



학) 캠퍼스를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휴게소에서는 오이타, 벳푸의 특산물은 물론 유후인의 특산물도 살 수 있으며, 함께 있는 레스토랑, 카페를 유후인의 고급 료칸인

무라타(Murata)에서 운영하고 있어 무라타 소바, 유후인 롤 케이크(B-speak)도 맛볼 수 있다. B-speak의 유후인 롤 케이크는 유후인에서 오전에 다 팔려버릴 정도로 인기가 높는데, 이곳에서는 거의 기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B-speak 카페 옆에는 아담하게 연인의 성지(恋人の聖地)로 오브제를 설치해두었으니 찾아보도록 하자.



분고모리 역의 증기기관차



폭포 뒤를 지나갈 수 있는 지온노타키 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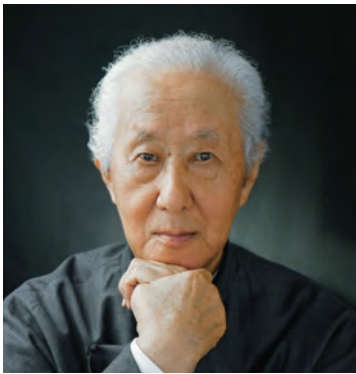


지온노타키 폭포

미치노에키란?

道の駅

미치노에키(道の駅)는 일본의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자가 제휴하여 설치한,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의해 등록된 상업시설, 체험시설, 지역부흥시설 등이 하나가 된 도로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며,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등 길이 나있는 곳의 휴게시설들을 미치노에키라 부른다. 1991년 테스트로 시작, 1993년에 정식 등록되었으며 도로 이용자를 위한 휴게기능(Refresh), 도로 이용자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정보 발신 기능(Information),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개발, 판매와 함께 지역활성화기능(Community) 등 3가지 기능을 담당하며 일본 전국에 1,154곳이 등록되어 있다. (2019년 4월 기준)



철학을 시각으로 결코 현상 유지에 머물지 않는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 磯崎新

이소자키 아라타(Isozaki 磯崎新)
2019 Pritzker Prize Laureate Arata Isozaki, Hon. FAIA

이소자키 아라타는 1931년 일본 규슈 오이타(大分)에서 태어났다. 그는 세계 제2차대전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자라며 “나는 건축도, 빌딩도, 도시도 없는 제로 그라운드에서 자랐다. 주변에는 오로지 막사와 피난처뿐이었다.” “건축에 대한 내 첫 경험은 부재이며 어떻게 집과 도시를 재건할지 생각했다.”는 말을 했다. 이후 1954년 도쿄 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최초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단게 겐조(丹下健三)의 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다. 미래의 대중 사회를 대비하여 대규모의 유기적으로 자생 가능한 건축과 도시 설계를 주장한 일본의 메타볼리스트 건축

운동(Metabolist Movement)에 영향을 받았던 그는 1963년 이소자키 건축사무소(Arata Isozaki & Associates)를 설립한 후, 일본 국내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주로 현대적인 첨단 건축기술을 이용한 실용주의 건축 설계를 했으며, 1966년 만들어진 오이타 현립도서관(大分県立大分図書館) 등이 대표작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이소자키는 일본 바깥으로 눈을 돌려 무대의 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간결하고 정형화된 일본 실용주의 건축에서 불규칙적이며 실험적이며 다양한 국가의 건축 양식이 섞인 포스트모던 풍 건축을 설계하

기타큐슈 시립미술관
Kitakyushu Municipal Museum of Art, ©Wiki591801





기타큐슈 시립중앙도서관 Kitakyusyu Central Library, ©八幡鏡太郎

기 시작했다. 이때 설계한 건축물로는 군마 현립근대미술관(群馬県立近代美術館, 1974), 기타큐슈 시립미술관(北九州市立美術館, 1974), 오이타 시청각센터(大分市視聴覚センター, 1979), 기타큐슈 시립중앙도서관(北九州市立

中央図書館, 1975), 쓰쿠바 센터빌딩(つくばセンタービル, 1983) 등이 있다.

1980년대에는 시카고의 하우스저만 쇼룸(ハウザーマン・ショールーム, 1982)을 시작으로, 뉴욕, 파리, 베를린 등지에



LA 현대미술관 Museum of Contemporary Art (MOCA) in downtown Los Angeles, California, ©Minnaert



미야기현 마쓰시마에 설치된 아크노바



아크노바 내부

스튜디오를 두고, 세계 각지에 여러 건축물을 설계하기 시작했으며 LA 현대미술관(로스앤젤레스現代美術館, 1986),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장으로 유명한 팔라우 산 조르디(파라우·산·조르디, 1990) 등을 설계하며 명성을 쌓기 시작한다. 이후 아시아, 유럽, 북미 등에 100여 건이 넘는 건축물을 설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동일본대지진 복구 지원으로 기획한 간이콘서트홀 아크노바(아크·노바, 2011)를 인도 출신 조각가인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와 함께 제작했다. 아크노바는 약



팔라우산 조르디 Palau Sant Jordi in Barcelona ©Katonams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동식 콘서트홀로 지진 피해지역에서 공연을 마치고 도쿄에 전시되었다.

이후 2019년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받았으며, 이소자키는 해외에 건축물을 세운 첫 일본 건축가 중 한 사람으로, 단순하면서도 공간을 재정의하는 설계로 찬사를 받았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세계 여러 지역의 전통을 배우는 동시에, 그 전통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동서양 간의 대화를 촉진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가 지난 60여년간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및 호주 전역에서 참여한 설계 프로젝트는 100여 건에 달한다.

역대 일본의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

단게 겐조(丹下健三, 1987)

마키 후미히코(槇文彦, 1993)

안도 다다오(安藤忠雄, 1995)

세지마 가즈요, 니시자와 류에(妹島和世, 西沢立衛 2010)

이토 도요오(伊東豊雄, 2013)

반 시게루(坂 茂, 2014)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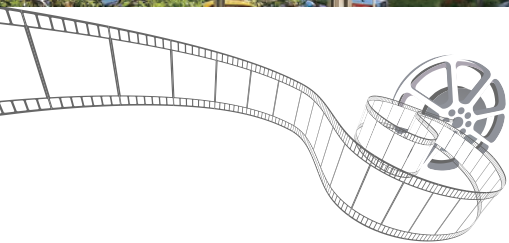
프리츠커 건축상

Pritzker Architecture Prize

프리츠커 건축상은 매년 하얏트 재단이 '건축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어 사람들과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생존한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79년 제이 프리츠커(Jay A. Pritzker)가 만들고 프리츠커 가문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건축상 중 하나이다. 이 상은 국적,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주어지며, 건축적 작업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양질의 혁신성과 건축적 사고의 훌륭함이 이 상의 기준이 된다. 건설 기술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중요 요건이다.



후쿠오카 하카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촬영지 후쿠오카 다자이후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君の膵臓をたべたい)는 일본에서 누적 발행 부수 260만 부를 기록한 소설가 스미노 요루(住野よる)의 소설로 인기에 힘입어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제작된 작품이다. 제22회 부산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한국에서도 정식 개봉되었으며 살짝 고어스러운 제목과는 다르게 잔잔하게 눈물을 쏟아내는 내용이 전개된다.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에서는 주인공이 고향인 나고야(名古屋)에서 처음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들의 여행지가 바로 후쿠오카(福岡)다. 후쿠오카는 일본 남쪽의





다자이후 상점거리



다자이후 텐만구



후쿠오카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야타이



우메가에모찌

규슈(九州)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부산에서 배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며,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주인공들이 후쿠오카에 도착했을 때 라멘(ラーメン) 냄새가 난다고 말할 정도로 후쿠오카는 라멘이 유명하고 ¹⁾일본의 대표적인 라멘 중 하나인 ²⁾돈코쓰 라멘(豚骨ラーメン)의 발상지이기도 한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라멘과 모쓰(もつ, 곱창) 구이 먹기를 따라해 본다. 후쿠오카는 곳곳에 라멘 가게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포장마차와 비슷한 야타이(屋

台)가 성행하는 곳이라 쉽게 맛볼 수 있었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영화에서처럼 다음 목적지인 다자이후(太宰府)로 이동한다. 다자이후의 중심에 위치한 다자이후텐만구(太宰府天満宮)는 일본 학문의 신이라고 알려지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를 모신 신사로 입시, 합격, 학업 성취 등을 기원하는 참배객이 연간 800만 명이 넘게 찾는다고 한다. 역에서 다자이후텐만구까지의 거리에는 많은 상점이 늘어서 있으며, 이곳에서 주인공들처럼 ³⁾우메가에모찌를 입에 물고 다자이후텐만구로 향한다.

1) 일본 라멘의 종류는 크게 쇼유 라멘(醤油ラーメン, 간장), 미소 라멘(味噌ラーメン, 된장), 시오 라멘(塩ラーメン, 소금), 돈코쓰 라멘(豚骨ラーメン, 돼지 사골)로 나뉜다.

2) 돈코쓰 라멘은 돼지 사골을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는 라멘으로 후쿠오카의 구루메(久留米)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후쿠오카에서는 구루메 방식의 진한 돈코쓰 라멘과 담백한 육수의 하카타(博多)의 나가하마 라멘(長浜ラーメン)을 주로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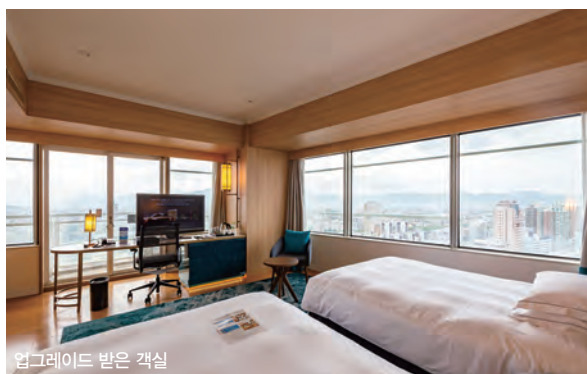
3) 우메가에모찌(梅が枝餅)는 후쿠오카 다자이후의 특산물로 얇은 밀가루 반죽에 팔을 넣어 구워낸 떡으로 봉어빵 같이 틀에 구워내는 요리다. 틀에 매화꽃 모양이 그려져 있거나 익힌 다음 매화 모양을 찍어낸다.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 로비



업그레이드 받은 객실



나카가와 강



후쿠오카 중앙공원

다. 다자이후 텐만구의 빨간 다리를 건너 경내에 도착하면 6,000그루의 매화나무가 반갑게 맞이해 준다. 주인공들처럼 가볍게 소원을 빌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후쿠오카로 향한다.

후쿠오카에 도착하자 저녁이 되어 숙소인 호텔을 찾았다. 호텔은 후쿠오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텔인 힐튼 후쿠오카 시호크(Hilton Fukuoka Sea Hawk), 영화에서도 주인공들이 진실 게임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던 중요한 장소이기에 이곳으로 잡게 되었다. 영화에서 그들이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받았던 것처럼, 나도 업그레이드를 받았다. (객실이 많아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 호텔로 유명하다.) 호텔에서는 바로 앞 후쿠오카의 바다와 해수욕장(시사이드 모모치(シーサイドももち)), 후쿠오카 야후오크돔(福岡ヤフオクドーム), 후쿠오카 타워(福岡タワー) 등 후쿠오카





후쿠오카 데아이바시



덴진 거리

의 랜드마크가 한 눈에 보인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하루를 만끽하고 후쿠오카 시내를 나선다. 후쿠오카의 시내의 덴진(天神) 거리, 나카가와(中川) 강을 건너는 후쿠오카 데아이바시(福岡出合い橋) 등 그들이 함께 걸던 후쿠오카 거리를 돌아보며 시간을 보낸다. 주인공들처럼 영화의 또 다른 배경지인 나고야로 돌아가서 함께 둘러보고도 싶었지만, 거리도 만만치 않고 그들의 후쿠오카 여행 다음은 이곳처럼 행복하지 않기에 좋은 마음만 간직하며 여정을 마무리한다.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

君の臓をたべたい, 2017

일본의 소설가 스미노 요루(住野よる)의 데뷔 소설이자 대표작인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를 영화화 한 작품으로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소녀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다. 주연인 하마베 미나미(浜辺美波), 기타무라 다쿠미(北村匠海)는 이 작품으로 일본 아카데미상 등 다양한 시상식에서 신인 배우상을 받았으며 기타가와 케이코(北川景子), 오구리 쉰(小栗旬) 등 일본의 인기 배우들이 조연으로 성인 역할을 맡았다.

일본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로케 장소 가이드

<http://loca.ash.jp/>

규슈 관광열차, A열차로 가자

강혜성 일본문화원 리포터(47)

이번에 소개할 규슈 관광열차는 바로 'A열차로 가자(A列車で行こう)'다. 일명 'A-Train' 이라 불리는 이 열차는 원래 철도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A열차로 가자'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A-Train은 16세기 아마쿠사(天草) 지방에 전해진 유령문화를 테마로 디자인된 열차다. 원목과 스테인드글라스로 화려하게 꾸며진 객실에, 재즈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한층 품격 있는 여행을 연출한다. 구마모토역(熊本駅)에서 미스미역(三隅駅) 구간을 1일 3회 운행하는 열차로서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 일정을 잘 확인하고 계획해야 탑승할 수 있다.

기존 차량을 개조하여 완전히 다른 내부 디자인으로 탈바꿈했다. 고급스러운 시트와 클래식한 인테리어는 기차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한다. A-Train 역시 다른 관광열차와 마찬가지로 전석 지정석으로 운영되므로 미리 JR규슈 웹사이트나 역 창구 등을 통해 좌석을 예약해야만 탑승할 수 있다. 다행히 유후인노모리나 이부스키노 다마테바코보다는 탑승객이 적은 편이라 당일에도 수월하게 예매가 가능하지





만,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예매할 것을 추천한다.
관광열차에서 기념사진 촬영은 빼놓을 수 없다. 승무원 모자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준비된 스탬프와 기념 승차권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규슈 관광열차를 섭렵해보는 것 역시 큰 재미다!

관광열차답게 에키벤과 디저트 등 먹거리와 기념품 등을 판매한다. A-Train만의 특별한 점은 Bar와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창가를 통해 해안가를 바라보며 재즈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분위기에 취해 어느덧 미스미역에 도착한다.

미스미역에 도착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전망대 바다의 피라미드(海のピラミッド)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자. 조용한 어촌 마을 분위기로 작은 항구와 버스

터미널이 있어 각 지역으로 연결할 수 있다. 배를 타고 마쓰시마항과 아마쿠사 지역으로 가면 규슈 올레길이 있다. 크고 작은 12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아마쿠사섬에서는 이와지마 코스와 마쓰시마 코스를 즐길 수 있다.

성인 1인 약 1,880엔 (동일 노선 일반 열차는 약 740엔)
규슈 레일패스 소지시 무료 (좌석 지정 필수)

운행 시간

1호차 구마모토역 → 미스미역 10:35 출발

2호차 미스미역 → 구마모토역 11:19 출발

3호차 구마모토역 → 미스미역 12:21 출발

4호차 미스미역 → 구마모토역 13:50 출발

5호차 구마모토역 → 미스미역 14:37 출발

6호차 미스미역 → 구마모토역 16:19 출발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므로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http://www.jrkyushu.co.jp/korean/train/atrain.html>





규슈 관광열차, 이부스키노 다마테바코

강혜성 일본문화원 리포터(47)

많은 사람이 후쿠오카로 여행을 가면 근교에 있는 유후인과 벳푸 온천을 방문하는데, 남쪽으로 눈을 돌리면 구마모토와 가고시마가 자리하고 있다. 매일 3회 가고시마 추오역(鹿児島 中央駅)에서 출발해 이부스키역(指宿駅)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이부스키노 다마테바코(指宿の玉手箱)는 구마모토와 가고시마 여행을 더욱더 즐겁게 해주는 열차다.

열차 외관은 마치 아수라 백작처럼 절반은 하얀색, 절반은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열차 역시 많은 열차를 디자인한 산업디자이너 미토오카 에이지(水戸岡鋭治)가 디자인했다. 이부스키노 다마테바코는 규슈 남쪽 지방의 전설인 우라시마 다로(浦島太郎)의 용궁전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열차다. 이 전설은 우라시마 타로라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북이를 구해주었고, 그 거북이를 따라간 용궁에서 환대를 받고 다시 육지로 돌아온

다는 내용으로 돌아갈 때 용궁 공주님께 받은 상자가 바로 다마테바코(玉箱, 보물 상자)다. 공주님은 이 상자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연 우라시마 다로는 상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를 맞고, 순식간에 늙어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용궁에서 보낸 며칠이 지상에서는 몇 십 년이나 지난 것이었다. 이 이야기의 콘셉트에 맞춰 열차 승하차 시 문이 열리면 수증기를 뿌리기 시작한다. 과연 일본다운 치밀함이 느껴진다.





객실 내부는 남규슈산 특제 삼나무 원목으로 만들어져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분위기의 열차로 기대를 안고 탑승했다.

기본 2인 좌석, 테이블이 있는 4인 좌석, 창측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1인용 회전 좌석,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소파 좌석 등 다양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전 좌석 지정좌석제이기 때문에 미리 좌석을 예매해야만 탑승할 수 있다. 유후인노모리와 마찬가지로 인기가 높은 편으로 최소 2,3일 전에는 역 창구나 JR 규슈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미리 예약할 것을 추천한다.

열차가 나아가면서 시내를 지나 긴코완(錦江灣) 지역과 사쿠라지마(桜島)가 보이기 시작한다. 사쿠라지마는 활화산으로 하루에 2~4회, 1년에 700~800회 분출하고 있어, 운이 좋으면 분출 장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열차 내에서는 각종 먹거리와 기념품을 판매한다. 가고시마의 명물인 흑돼지로 만든 오리지널 에키벤(駅弁)과 이부스키 사이다, 흑임자 푸딩 등이 있으며 이부스키노 다마테바코 열차 모형의 상품은 인기가 많다.

승무원 모자를 쓰고 기념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규슈의 각 지역에서 운행하는 관광열차마다 준비된 기념 스탬프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하나하나 모으면서 규슈 관광 열차를 섭렵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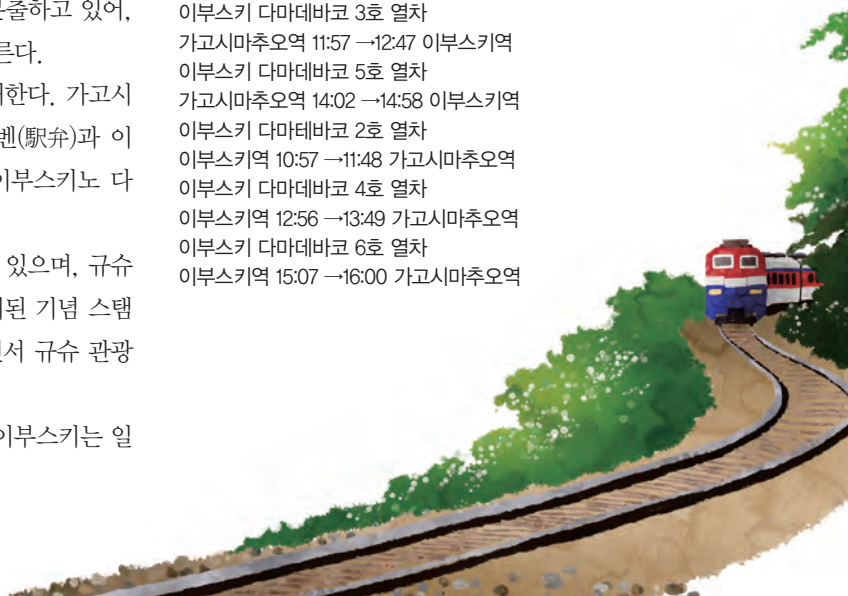
이부스키에 도착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부스키는 일

본 규슈 최남단에 위치한 따뜻한 지역이며, 온천 휴양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온천과 모래찜질(砂湯)이 유명한데, 바닷가 근처에 마련된 장소에 유카타를 입고 누우면, 따뜻한 모래를 덮어준다. 이부스키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는 온센타마고가 들어있는 흑돼지 찌개와 흑돼지 덮밥 등의 요리를 추천한다. 또 이부스키역 앞에 있는 무료 족욕탕에서 피로를 풀고 걷는 것도 좋다.

성인 1인 2,140엔 (동일 노선 일반 열차는 약 1,000엔)
규슈 레일패스 소지시 무료 (좌석 지정 필수)

운행 시간

이부스키 다마테바코 1호 열차
가고시마추오역 09:58 → 10:49 이부스키역
이부스키 다마테바코 3호 열차
가고시마추오역 11:57 → 12:47 이부스키역
이부스키 다마테바코 5호 열차
가고시마추오역 14:02 → 14:58 이부스키역
이부스키 다마테바코 2호 열차
이부스키역 10:57 → 11:48 가고시마추오역
이부스키 다마테바코 4호 열차
이부스키역 12:56 → 13:49 가고시마추오역
이부스키 다마테바코 6호 열차
이부스키역 15:07 → 16:00 가고시마추오역



2019 여름일본문화소개전

‘일본의 완구와 놀이문화전’을 마치고



7월 24일(수)부터 8월 6일(화)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열린 '2019 여름일본문화소개전'이 12일 동안의 일정을 마쳤다. 7, 8월 한 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총인원 1,300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올해 여름일본문화소개전은 일본의 전통부터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종류의 완구와 놀이문화를 소개하는 '일본의 완구와 놀이문화전'과 '명탐정코난 특별전' 그리고 일본의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소품 전시 및 여름축제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여름풍경전'을 함께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했던 관람객들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행사라 3년째 방문하고 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학교 수행평가가 있어서 왔는데 의외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새롭게 체험하는 것이 많아서 좋았다." "좁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전시와 체험코너가 있어 만족스러웠다."는 감상을 전했다. 또 7월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다이도게쇼에서는 프로 저글러 '미스 설리번', 뮤직퍼포먼스팀 '프리코로하우스', 코믹댄스팀 '부리카마'가 출연하여 정열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호흡하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 종료 후, 관람객들로부터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해서 공연해준 아티스트 분들께 감사하며, 정치 관계를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간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기간 중, 5회에 걸쳐 진행된 '초등학생 일본문화체험교실'에서는 일본문화 강의와 퀴즈, 부모님과 함께 칠월칠석 장식물인 '아미카자리(網飾り)' 만들기, 그리고 전통놀이도구 체험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앞으로도 관람객들이 보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기획으로 '일본문화소개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6회 한일포토콘테스트 개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행정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제6회 한일포토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사진을 통해 양국 국민이 상대국의 매력을 새로이 발견하고,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 촉진과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작품 응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7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한국 국적자는 '일본의 매력'을, 일본 국적자는 '한국의 매력'을 테마로 한 사진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우수한 작품을 응모한 각 수상자에게는 양국의 행정기관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수여되며, 수상 작품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전시된다.

응모기간(온라인) 10월 15일(화)까지

결과발표 11월 13일(수)

수상작품 전시 11월 29일(금)~12월 6일(금)

시상식 11월 30일(토)

참가대상 한국 국적자 또는 일본 국적자는 누구든 참가 가능

응모방법 '제6회 한일포토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

(한국어) <http://kjphotocon.org/> (일본어) <http://jkphotocon.org/>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제17회 한일 가라오케 대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후원하고, SJC(Seoul Japan Club)가 주최하는 '제17회 한일 가라오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Seoul Japan Club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jchp.co.kr/>

응모요령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일본어 노래(일본어 자막)를, 일본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한국어 노래(한국어 자막)를 부르며, 그 이외의 외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한국어, 일본어 노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 예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응모가 가능하다. 단, 참가 비용 등은 모두 본인 부담이다.

응모 마감 9월 20일(금)

예선 일시 및 장소 10월 12일(토), Seoul Japan Club 회의실

본선 일시 및 장소 11월 2일(토) 14:00, 동자아트홀

주최 Seoul Japan Club(SJC)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의 Seoul Japan Club 사무국 02-739-6962



9월 일본영화상영회

키네마준포 선정 역대 베스트 10 걸작선

일본 최고의 역사가 있는 영화전문지 키네마준포(キネマ旬報)가 매년 선정해서, 발표하는 한 해의 일본 영화 베스트 10. 192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93회를 맞이하는 이 상은 미국의 아카데미상보다 긴 역사와 함께 일본영화계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 9월의 일본영화상영회에서는 역대 키네마준포 선정 베스트 10 작품 중, 주요 걸작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시간 14:30분(14:00부터 입장)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상영 일정	영화 제목
9월 10일(화)	고하토 御法度 (2000년 3위작)
9월 11일(수)	황혼의 사무라이 たそがれ清兵衛 (2002년 1위작)
9월 19일(목)	홍악 凶悪 (2013년 3위작)
9월 20일(금)	행복목욕탕 湯を沸かすほどの熱い愛 (2016년 7위작)
9월 24일(화)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月はどこにっている (1993년 1위작)
9월 26일(목)	셜 위 맨스 Shall We ダンス? (1996년 1위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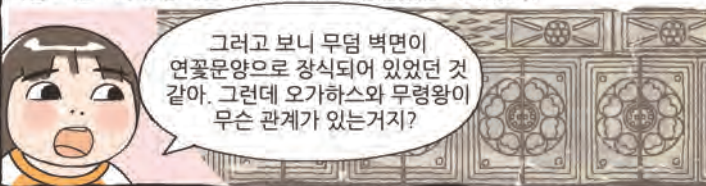
가장고도 먼 이순나라 앞초, 대정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지난 6월, 공주시 우성면에 위치한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특별한 연꽃 설명회가 있었다. 연꽃의 이름은 오가하스 무령왕 연꽃.



*오늘 설명회의 사회를 맡으신 공주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윤용혁 명예교수님의 말씀.
20여 년 전, 무령왕릉이 일반 공개되고 있었을 당시, 멋모르고 찾아갔던 그곳에서 벽돌로 정교하게 장식된 왕릉의 모습에 감탄했던 적이 있다.



*무령왕릉은 현재 송산리 고분군 모형 전시관에서 그 모습 그대로 재현 전시되고 있다.

이 오가하스는 치바시에 거주하시는 공주회 노무라(野村京生) 회장님의 주선으로 2018년 2월, 공주시가 일본 치바시에 정식으로 연꽃의 뿌리를 분양 받게 된 것이다.



*공주회(公州會)란 식민지 시대 당시 공주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을 따라 공주로 건너와 유년시절을 보냈던 일본인들의 모임.

일본에서 연잎을 즐기는 풍류인 하엽차 혹은 하엽주(荷葉酒)는 동그란 연잎 위에 술이나 차를 조금씩 부어가며 연잎 줄기를 빨대 삼아 즐기는 방법이다.



*하엽주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만드는 방법은 다르다.

1951년 일본의 치바시(千葉市)에 있는 도쿄대학 농장 지하에서 약 2천 년 전의 고대 연꽃 씨앗 3개가 발견되었고 그 중 한개가 기적적으로 발아하여 개화에 성공했다. 오가하스 연꽃은 이렇게 오랜 잠을 깨고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집념의 업적을 이룬 오가 이치로(大賀一郎 1883-1965) 박사의 이름을 따서 오가하스가 되었다.



오가하스는 치바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 일본은 물론 해외 각국에 나뉘어 재배되고 있어 우호와 평화의 사자로도 사랑받고 있다.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공주무령왕 국제네트워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



공주시는 '오가하스 무령왕 연꽃'을 무령왕릉 경내에 있는 백제 연못에 심어 내년 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령왕과 같은 시대를 살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오가하스 무령왕 연꽃, 생기 가득 꽃피우라~